# 근대 불교미술 이끈 일섭 스님의 예술과 삶

### '금용 일섭–근대 부처를 만들다'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7월 1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상, 불화, 단청 등 한국 근대 불교미술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특별전 '금용 일섭 - 근대 부처를 만들다'를 개최한다.

금용(金蓉) 일섭(日燮) 스님은 호남 출신의 금어(金魚)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활동하며 전국의 사찰에 수많은 불상, 불화, 단청을 남긴 근대 불교미술의 선구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섭의 대표작인 불상, 불화와 함께 작업에 사용한 밑그림과 불상 틀 등을 소개함으로서,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했다. 1부 '전통에서 배우다'에서는 조선 말기에 활약했던 스승들과 함께 만든 일섭 스님의 초기 작품을 소개한다. 일섭 스님은 1918년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후, 그림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돌며 스승을 찾아 나섰다. 평생의 스승이 된 보응 문성 스님(1867-1954)을 만나 제자가 된 후에도 여러 선배 화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불상, 불화, 단청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를 전수받았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2부 '근대 불교미술계를 이끌다'에서는 스승에게서 독립하여 불교미술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일섭 스님이 근대 불교미술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다. 일섭 스님은 1935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에 참여하고 1938년 조선불교 총본산 태고사 대웅전(현 서울 조계사 대웅전) 불화를 조성하는 등 30대 중반에 많은 대규모 불사를 주도했다.

3부 '대금어의 길'에서는 일섭 스님이 40~50대에 조성한 대작들을 소개한다. 이 시기 일섭 스님은 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이끌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 높이 4m 이상의 대형 후불도를 조성하거나, 한 사찰의 불상 · 불화 · 단청을 모두 조성하는 등, 대규모 불사를 행하는 종합 예술가의 면모를 보였다.

4부 '장인에서 예술가로'에서는 근대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쓴 일섭 스님의 면면을 살펴본다. 만년의 일섭 스님은 불교미술단체 설립과 공모전 출품, 저서 출간 등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1971년에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 제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제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일섭문도회'라는 이름으로 불교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불교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몇몇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불교적 도상에 충실하면서도 재료와 기법을 달리한 웹툰 작가의 팔상도, 대리석 조각가의 불상, 철 조각가의 사천왕상 등 현대 작가들의 기발한 불교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박물관 연구사는 "일섭 스님이 추구했던 불교미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종교를 떠나 전통 시대와 현대 사이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근대인의 예술작품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시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사)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정우택)와 공동으로 5월 18일 오후 3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송광사성보박물관 신은영의 "금용 일섭의 〈연보〉와 불교예술운동"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근대 불화 · 불상과 일섭 스님의 예술활동을 조망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백제의 추억, 무량사로…

###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나들이' 특별전
### 정림사지박물관 7월 15일(일)까지


무량사 5층석탑 1층 탑신 안에 봉안되었던 아미타 삼존불.

마당의 석탑은 백제를 추억하게 하고 극락전은 그 모습이 너그러워 나그네의 마음을 달래준다. 부여 만수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무량사.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정림사지박물관은 5월 15일(화) 부터 7월 15일(일)까지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나들이' 특별전을 개최한다.

무량사(주지 정덕)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보물 제356호 극락전을 비롯한 7점의 보물과 10점의 충청남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천년고찰이자 부여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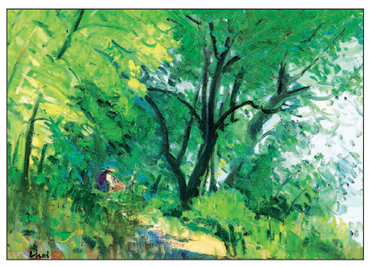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무량사의 소장 유물과 무량사구지의 출토유물을 소개한다. 무량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명문기와와 무량사 5층석탑 안에서 극락왕생을 염원하던 4구의 불상을 선보인다. 불상은 그간 도난 되었다가 되찾은 귀중한 성보문화재이기에 더욱 가치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과정으로 탄생한 귀중한 불교 문화재가 전시된다. 더불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켜보며 방랑길에 올라 무량사에서 입적한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백세의 스승인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의 초상화도 전시된다. 이와 더불어 보물 제1860호인 '삼전패' 3점 중 '나무아미타불패'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삼전패는 조각기법과 채색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대표되는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는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유적이 산재해 있는 야외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량사에는 한국석탑의 원형인 정림사지 5층석탑을 꼭 닮은 백제계 석탑 무량사 5층석탑이 있어 유구한 백제 불교문화의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무량사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켜보며 방랑길에 올라 무량사에서 입적한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백세의 스승인 매월당 김시습의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정림사지박물관은 2006년 9월 백제 사비시기의 불교와 그 중심에 있었던 정림사를 주제로 백제 불교문화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고자 개관하였으며 2013년 8월부터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백제 불교문화의 가치를 재창출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사비지역의 역사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탑골미술관 故 최낙경 화백 회고전

###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
### 탑골미술관 6월 15일까지


사생, 캔버스 유채. 49×36.5㎝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6월 15일까지 탑골미술관 제7회 기획초대전으로 故 최낙경 화백의 회고전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를 개최한다.

최낙경 작가는 1943년생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주변과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이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작고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풍경화 외에도 목판화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개인전 '소월시집 목판화전'을 열기도 했으며, 매일경제신문, 스포츠서울, 한국일보 등 1980년대 주요 일간지 연재소설의 삽화를 그렸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기획전에 故 최낙경 화백이 함께 한 이유는 그가 바로 종로에서 살고, 교류하며, 고민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사동 일대 화백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으로서의 최낙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단순히 화가 한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품과 더불어 살아생전 화백으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품과 미술도구 등을 함께 전시한다. 화가 최낙경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전시에는 '인왕산 수성동 잔설' '제주 비양도' 등 약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02)6220-8506. 박재완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